

국민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한 긴급 가격안정 대책 속도감 있게 추진

- 한훈 농식품부차관, 농식품 비상수급안정 대책회의 개최
- 3월 18일 민생경제 점검회의에서 발표한 농축산물 가격안정 대책의 추진상황 점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3월 20일(수)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한훈 차관 주재로 ‘농식품 비상수급안정 대책회의’를 개최하였다.

* 참석 : 농식품부, 농진청, 농협경제지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한국식품산업협회, 육류유통수출협회, 도매시장법인, 대형마트 3사 관계자

이번 회의는 지난 3월 18일 민생경제 점검회의에서 발표한 농축산물 가격안정 대책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관련업계 등의 현장 의견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3월 15일 대책〉	〈3월 18일 추가 대책〉
◇ 대체과일 본격 출하 전(3~4월) 농축산물 물가안정 위해 1,500억원 추가 투입 ① 납품단가 지원(755억원) : 품목 확대(13→21개), 지원단가 최대 2배 확대 ② 할인지원(450억원) : 할인율 상향(20→30%), 전통시장 지원 확대 ③ 과일 직수입(100억원) : aT가 5개 과일 직수입, 최대 10% 할인공급 ④ 축산물 할인(195억원) : 한우·한돈·계란·달고기 할인폭 확대 및 납품단가 인하	◇ 3월 15일 발표한 긴급 가격안정자금(1,500억원)을 가격안정 시까지 확대 집행 ① (납품단가) 4월 이후에도 가격이 불안정할 경우 적용기한 연장, 품목단가 탄력 적용 ② (할인지원) 온라인몰 중 추가 참여 희망 업체, 전통시장 등으로 지원대상 확대 ③ (수입) 바나나오렌지 중심 aT 직수입 물량 확대 3~4월 집중 공급, 할당면세 품목물량 확대 ④ (기타품목) 수급여건이 양호한 축산물, 가공식품도 생산자단체·유통업체와 연계한 할인 판매 추가 확대(4월 초)

① 납품단가 지원 관련, 3월 18일부터 지원품목을 기존 13개에서 21개로 확대*하고, 지원단가도 품목별로 최대 2배까지 확대 적용**하고 있다. 농산물 납품단가 지원으로 유통업체의 판매 정상가격이 낮아져 소비자의 물가 불안 심리를 낮추는 효과가 있으며, 유통업체 자체할인과 정부 할인지원 30%까지 더해질 경우 소비자 물가 부담이 더욱 완화되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 (기존) 사과, 감귤, 토마토, 청양고추, 참외, 딸기, 파프리카, 오이, 애호박, 대파, 고춧가루, 배추, 시금치 등 13품목 → (추가) 배, 포도, 키위, 단감, 깻잎, 상추, 양배추, 깻마늘 등 8품목

** 사과 2,000원/kg→4,000, 딸기 1,600원/kg→2,400, 토마토 1,800원/kg→2,700 등 8품목

② **할인지원 관련**, 3월 18일부터 3월 27일까지 매주 선정된 품목*에 대해 전국 대형·중소형마트, 하나로마트, 친환경매장, 온라인몰 등 유통업체의 할인을 20%에서 30%로 상향하여 매주 1인 1만 원 한도로 지원하고 있다.

* 3.14~3.20. 사과, 배, 대파, 시금치, 오이, 애호박, 청양고추, 토마토, 상추, 파프리카, 깻잎 등 11종

3.21~3.27. 사과, 배, 대파, 시금치, 오이, 애호박, 청양고추, 토마토, 상추, 파프리카, 깻잎, 당근 등 12종

할인지원 품목은 매주 선정하여 홈페이지(sale.foodnuri.go.kr)에 게시

특히,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소비자의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3월 20일(수)부터 3월 22일(금)까지 전국 51개 전통시장에서 「3월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전통시장에서 국산 농축산물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1인당 최대 2만 원 한도로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행사이다. 소비자들은 행사 추진 시장에서 국산 신선 농축산물을 구매하고 영수증과 신분증을 지참하여 시장 내 환급 부스에 가면 본인 확인 후 온누리상품권을 환급*받을 수 있으며, 행사 참여 시장 등 자세한 내용은 공식 누리집(sale.foodnuri.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구매금액 3.4만 원~6.7만 원 미만 → 1만 원 환급 / 6.7만 원 이상 → 2만 원 환급

또한, 농식품부는 전통시장에서 이용 가능한 제로페이 농할상품권을 3월 21일부터 4월 말까지 총 600억 원 규모(국비 180억 원)로 6차례 발행할 계획이다. 1인당 월별 최대 10만 원까지 구매 가능하며, 농할상품권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비플페이 앱에서 확인하거나 한국간편결제진흥원(1670-0582)에 문의하면 된다.

③ **과일 직수입 관련**, aT는 3월 중 바나나 1,140톤, 오렌지 622톤을 직수입하여 마트에 20% 정도 낮은 가격으로 공급할 계획으로 빠르면 3월 21일부터 초도물량이 공급될 예정이다. 아울러 직수입 품목*도 5개에서 11개로 확대하되 3~4월 중에는 사과 대체 가능성이 높은 바나나와 오렌지를 중심으로 집중 공급할 계획이다.

* 바나나, 오렌지, 파인애플, 망고, 체리, 자몽, 아보카도, 만다린, 두리안, 키위, 망고스틴

④ **축산물 할인 관련**, 한우는 3월 21일부터 3월 31일까지 자조금을 통한 온·오프라인 30~50% 할인 행사를 추진하며, 이번에 추가된 예산을 활용하여 이와 같은 할인행사를 연중 10회에서 25회로 15회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한돈은 설 기간에 실시한 자조금 활용 20~40% 할인 행사를 3월 말까지 연장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추가 예산을 활용하여 이와 같은 할인행사를 연중 6회에서 10회로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닭고기는 지난 3월 14일부터 추진하고 있는 자조금을 활용한 농협 하나로마트 할인 지원(1,500원/마리)을 당초 3월에서 연말까지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계란은 지난 3월 14일부터 농협이 대형마트나 중소형마트로 공급하는 납품단가 할인액을 30구 1판당 500원에서 1,000원으로 확대하여 공급하고 있으며, 이번에 추가된 예산을 활용하여 공급물량과 대상업체를 확대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3월 들어 일조량이 증가하고 기온도 상승하는 등 기상여건이 개선되고 있으며 출하 지역도 늘어나 시설채소를 중심으로 농산물 소비자 가격이 점차 하향세를 보인다고 밝혔다.

* 3월 중순 주요 농산물 소비자가격 변동률(3월 상순 대비, %, aT) : 사과 △7.0, 배 △0.03, 토마토 △7.5, 딸기 △10.0, 배추 △11.9, 무 △2.8, 대파 △13.1, 상추 △2.2, 깻잎 △8.7, 시금치 △7.0, 오이 △18.1, 애호박 △4.9, 청양고추 △8.8

한훈 차관은 “농식품부는 국민 장바구니 물가를 빠르게 안정시키기 위해 마련한 3.18 대책을 신속하게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하며, “정부와 함께 생산·유통·식품업계 등 농식품분야의 모든 경제주체가 힘을 모아 총력으로 대응하자.”라고 당부하였다.

붙임 농식품부 차관 모두발언

담당 부서	유통소비정책관실 원예산업과	책임자	과 장	신우식 (044-201-2231)
		담당자	사무관	남기현 (044-201-2234)



- 지금부터 “농식품 비상수급안정 대책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 오늘 회의는 지난 3월 18일 민생경제 점검회의에서 발표한 농축산물 가격안정 대책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의견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고자 마련하였습니다.
- 3월 15일 발표한 긴급 가격안정자금 1,500억원을 가격 안정 시까지 확대 집행하겠습니다.

(1) 먼저 농산물 납품단가 지원은

3월 18일부터 지원품목을 기존 13개에서 **21개로 확대**하고, 지원단가도 품목별로 **최대 2배까지 확대**하여 적용 중입니다.

* (기존) 사과, 감귤, 토마토, 청양고추, 참외, 딸기, 파프리카, 오이, 애호박, 대파, 고춧가루, 배추, 시금치 등 13품목 (추가) 배, 포도, 키위, 단감, 깻잎, 상추, 양배추, 깻마늘 등 8품목

** 사과 2,000원/kg→4,000, 딸기 1,600원/kg→2,400, 토마토 1,800원/kg→2,700 등 8품목

- 납품단가 지원은 유통업체의 판매 정상가격이 낮아져 소비자의 물가 불안심리를 낮추는 효과가 있으며,
- 유통업체 자체할인과 정부 할인지원 30%까지 더해질 경우, 물가 부담 완화 효과가 더욱 크게 나타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2) 농산물 할인 지원은

3월 18일부터 27일까지 전국 대형·중소형마트 등을 대상으로 할인율을 20%에서 **30%로 상향**하였습니다.

- 특히, 전통시장을 더 많이 이용하시는 분들을 위해 오늘(3.20.)부터 3월 22일까지 전국 51개 전통시장에서 「3월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개최합니다.

- 또한, 전통시장에서 이용 가능한 제로페이 농할상품권을 내일(3.21.)부터 4월 말까지 총 600억 원 규모(국비 180억 원)로 여섯 차례 발행할 계획입니다.
- (3)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aT)에서 추진 중인 과일 직수입 공급은 3월 중 바나나 1,140톤, 오렌지 622톤을 수입하여 20% 낮은 가격으로 공급할 계획이며, **빠르면 내일(3.21.)부터 초도물량이 공급될 예정입니다.**
- 아울러 품목도 기존 5개에서 11개로 확대하되 3~4월 중에는 사과를 대체할 가능성이 높은 바나나와 오렌지를 중심으로 집중 공급할 계획입니다.
- * 바나나, 오렌지, 파인애플, 망고, 체리, 자몽, 아보카도, 만다린, 두리안, 키위, 망고스틴
- (4) 공급 여력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축산물 할인도 확대합니다.
- **한우는** 내일(3.21.)부터 3월 31일까지 최대 50% 수준의 자조금 할인행사를 추진하고, 연중 10회에서 25회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 **한돈**은 설 기간에 실시한 최대 40% 자조금 할인행사를 3월 말까지 연장하여 추진 중이며, 연중 6회에서 10회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 **닭고기**는 3월 14일부터 시작된 하나로마트 할인지원을 연말까지 계속 추진할 계획이며,
 - **계란**은 3월 14일부터 산지농협에 지원 중인 납품단가 지원액을 1판당 500원에서 1,000원으로 확대하였으며, 추가 예산을 활용하여 물량과 대상업체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 농식품부는 국민 장바구니 물가를 빠르게 낮추기 위해 이번엔 마련한 3.18 대책이 차질없이 추진 될 수 있도록 가용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 농식품부와 함께

생산·유통·식품업계 등 농식품분야의 모든 경제주체가 힘을 모아 총력으로 대응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